

<報 告>

# 第一回 世界經濟史學會의 參觀報告

高 承 濟

第一回 世界經濟史學會(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Economic History)는 지난 8月 17, 18, 19日의 3日間에 걸쳐서 北方의 「베니스」라 부르는 「스톡크홀름」의 市內에 있는 「스톡크홀름 經濟大學」(Handelshögskolan)에서 開催되었다.

「스톡크홀름 經濟大學」이란 堅固히 지은 四方形의 四層建物이다. 「스톡크홀름」에서 열리는 各種의 學會가 이 大學에서 열린다고 하니 交通이 便利한 位置에 있을 뿐 아니라 設備가 가운 곳이기 때문인듯 하다. 내가 보기에는 堅固히 지은 建物이기는 하나 華麗한 校舍는 아니다. 學會가 열린 곳은 18個의 大圓柱가 무겁게 서 있는 講堂이었다.

이 學會에는 美國으로부터 36名의 經濟史學者가 參與했으며 英國에 45名, 佛蘭西에서 28名, 瑞典에서 29名이 參與한 것을 비롯하여 245名이 모인 經濟史學會界의 盛典이었다. 一般史學의 國際會議는 오랜 傳統을 지니면서 자주 開催되어 왔으나 經濟史學의 分野에 있어서는 이 「스톡크홀름」會議가 前例없는 學會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第一回 學會라는 點에 깊은 感興을 느끼고 있는듯 했다. 東洋圈에서는 印度에서 1名, 日本에서 6名, 韓國에서 1名이 參與했으나 印度代表는 英國인이었으니 다만 極東에서 7名이 參與했을 뿐이다. 스스로 寂寞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光景이었다.

8月 17日 下午 1時에 學會가 開幕하였다. 議長席에는 瑞典의 代表인 「소덜룬드」(E. Söderlund) 教授가 앉았다. 첫 順序는 「캠버릿지大學」 「벨릴」(K. E. Berrill) 教授의 “Industrialization as a Factor in Economic Growth after 1700”라는 論題에 立脚한 報告이었다. 豫定時間은 15分間이 있으나 25分으로 길어졌다. 이처럼 짧은 報告에 대하여 33名의 教授가 登壇하여 質疑를 展開하였다. 報告者는 質疑의 要旨을 記錄하기에 바빠하고 個個 質疑에 直席에서 對辯하지 않고 모든 質疑가 끝난 然後에 15分 가량 總體의 要約答辯을 할뿐 이었다. 下午 1時에 始作한 이날 會議는 밤 11時半에야 끝났다. 歐美의 學術會議가 하나의 慣習을 가지고 있다면 質疑의 展開에 말할 수 없이 力點을 기우리고 있다는 事實일 것이다. 過去 260年間에 걸쳐서 工業化가 經濟成長에 있어 어떻게 役割하여 왔을가를 解明하고자 하는 것이 主題로 하고 있으나 報告 및 質疑의 基調는 回顧의 解明보다 展望의 觀測에 기우려지고 말았다. 다시 말하며 18世紀 以來의 經濟史過程에서 工業化가 어

명게 主導의 役割을 다 해 왔느냐를 回顧的으로 再確認하려는 視角에서 離脫하여 이제부터 進展되어야 할 經濟成長의 過程에 있어 工業化가 어떠한 役割을 다 해야 할 것인가를 展望的으로 觀測하는 곳에 報告와 質疑의 方位를 세우고 말았다. 會議가 끝나 사람들이 散散히 흐터지는 무렵에 나는 「포스탄」(M. M. Postan) 教授에게 所感을 물었다. 갑자기 言聲을 높이면서 나는 켄부릿지大學의 經濟史教授이며 史學者이다. 나는 「에코노미스트」가 아니라고 對答 하였다. 아마 報告와 質疑의 方位가 現實에서 未來에로 展開되어야 할 經濟成長의 理論的 解明에 偏重된 것을 滿足히 여기지 못하는 想念을 이런 對答으로 表現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벨릴」教授는 그報告에 있어 다음 네가지 問題를 提起하였다. 첫째로 經濟成長을 國民經濟의 基準으로 測定 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報告者가 「라스토오」(W. W. Rostow) 教授가 “The Stage of Economic Growth”에서 適用한 모델에 따라서 一人當 所得을 基準삼아 經濟成長을 測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宣言했기 때문에 모든 質疑는 一人當 所得을 經濟成長의 測定로 信賴할 수 있는 基準이 되느냐, 못되느냐에 集中되고 말았다. 따라서 國民經濟의 基準에 立脚하여 經濟成長을 測定하는 方法이 있느냐, 없느냐, 萬若 있다면 무엇이나에 관한 論議는 거의 없었다. 數多한 經濟史學者가 모인 자리인 만큼 「크라크」(Colin Clark)의인 產業三分法의 妥當性에 관한 論議가 있을만 하였으나 一言의 論及조차 없었다. 한편 이처럼 「크라크」의인 產業三分法이 論議의 對象에 오르지 못하고 거의 埋沒되다싶이 되고 만것은 그 方法이 이미 時代의 遺物로서 學問進展의 背後안에 사라져 가고 있는 運命을 마지 하고 있는 指標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둘째는 工業化란 經濟成長의 結果이나, 그 原因이 되는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視點을 歷史에 두느냐, 政策에 두느냐에 따라서 對答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經濟史의 視點에서 본다면 農業을 基幹產業으로 하는 一般經濟力의 成熟에서 工業化가 歸結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앞으로 展開될 政策의 觀點에서 본다. 工業化는 經濟成長의 原因이 되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의 基幹手段으로써 工業化를 意慾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工業化의 基盤이 一般經濟力의 成熟에서 造出된다는 歷史의 敎訓을 忘却할 수 없는 것으로 믿어진다. 세계는 몇개의 모델로서 모든 나라에 걸친 經濟成長過程을 分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問題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서는 뜻밖에도 數多한 質疑가 提起되었다. 모든 質疑는 漸次로 두 陣營으로 分化되고 말았다. 歷史와 自然地理의 條件을 달리하는 數많은 나라에 고루게 適用되는 모델을 찾아 낼 수 있느냐, 있다고 信念하는 陣營에 대하여 나라마다 個別的인 모델을 適用해야 된다고 實證을 精密히 세우면서 反對하는 陣營으로 나누어 졌다. 대개

을 精密히 選定한다면 數多한 나라에 適用될 수 있는 유니버어살한 經濟成長論을 세울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카고大學」을 비롯한 其他 美國大學의 學者들은 유니버어살한 成長모델을 세우는 것이 옳지 못하며 歷史와 自然地理的 條件의 相違에 따라서 特殊分析이 適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이처럼 主張을 달리하는 學者들이 서로 前後하여 登壇하여 場內는 숨가쁠만큼 緊張을 거듭하여 갔다. 顯著한 光景만을 摘記하기로 하겠다. 「존·호프킨스」大學의 「렛티모어」(D. Latimore) 教授가 登壇하여 中國經濟史의 動態를 規定한 背景이 自然地理的 條件이었다고 前提하고 나라에 따라서 特殊分析이 適用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내려오자 바로 後列에 앉아 있던 印度統計研究所의 「솔너어」(Thorner) 教授는 달리는듯이 登壇하여 대뜸 「렛티모어」教授를 손가락질 하면서 지나친 自然地理的 條件에 대한 強調를 是正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印度의 經濟史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印度는 棉花의 主產國이다. 이처럼 有利한 自然地理的 條件을 가추었음에도 不拘하고 印度는 工業國이 될 수 없었다. 이 事實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冊床을 치고 내려 왔다. 壇下에 앉아 있던 「렛티모어」教授는 한편 쳐다볼뿐 「솔너어」教授가 壇을 내릴때 까지 저녁 햇빛이 비치고 있는 窓밖을 내다만 보고 있었다.

넷째는 經濟成長을 規定하는 變數로서 農業, 人口, 外國貿易, 政府施策, 企業組織 및 形態, 投資 및 技術 그리고 戰爭等を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問題였다. 先進國과 後進國의 경우에 따라서 이 8個의 變數가 어떻게 相異한 役割을 다 하느냐는 重要한 問題였으나 이미 北方 하늘에는 太陽의 殘照가 完全히 사라졌다. 時計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다. 8月 17日の 밤이 었으나 밖으로 나오니 부러오는 바람은 韓國의 첫 겨울처럼 쌀쌀하고 추웠다.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宿所로 도라가기에 바빠 하는 것을 보니 午後 1시부터 11時 30分까지 繼續된 會議가 疲困한듯 하였다.

8月 18日の 會議는 아침 9시에 始作했다가 下午 6시에 끝났다. 그동안 2時間의 晝食時間이 끼었으니 會議는 7時間 繼續된 셈이다. 이날에는 西獨 「문헨大學」의 「류트게」(F. Lütge) 教授의 報告로 始作하였다. 論題는 “Large-scale Agricultural Enterprise since the End of the Middle Ages”였다. 巨大한 體구를 가진 「류트게」教授는 報告하는 동안에 冊床위에 팔을 세우고 턱을 고이기도 하며 머리카락을 몇번이고 쓰다듬어 올려 보기도 한다. 때로는 두 손을 모아 쥐고 全身을 리드미 같하게 上下로나 前後로 흔들기도 한다. 前日에 報告한 「캠부릿지大學」의 「벨릴」教授에 比하여 매우 다른 姿勢로 報告에 始終하였다. 知識에 대한 信念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 바로 傳達하고자 말겠다는 情熱에 불타는듯한 姿勢이었다. 다만 報告時間이 15分間으로 規定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40分이 되도록 報告가 泰然히 進行되었다. 이때에 議長席에 앉아 있던 佛蘭西의 代表인 「부로들」(F. Braudel) 教授가 작은 紙片을 報告者에게 手交하였다. 내열에 앉아서 자주 時計를 쳐다보기만 하던 어떤 教授는 壇上에서 버려진 光景을 보고 나죽히 소리를 내어 웃

었다.

「류트게」教授는 이 報告에서 大農企業의 形成條件을 未開地, 農耕地, 共同地 및 土地賣買等에 두고 各條件을 歷史的으로 實證하였다. 二次大戰後 先進工業國에서 再農業化政策等이 줄기차게 展開되고 있는 現實을 想起하면서 이報告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再農業化의 政策的 基調를 大農企業制의 形成에 관한 史的 檢討를 걸쳐서 再確認하려는데 이 報告의 志向이 潛在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質疑는 前日에 比하여 低調했으나 質疑의 趣旨가 報告內容을 補強하는 일에 誠意를 다 했다는 事實에 대하여서는 感慨 깊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報告가 土地問題에 偏重되었기 때문에 經營面에서 大農企業制의 形成過程을 分析해야 한다는 諸點에 모든 質疑가 提起되었다. 몇가지 質疑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丁抹, 「코펜하겐大學」의 「프리스」(A. Friis) 教授는 農業發展과 租稅의 發展 促進의 關係에 관한 分析이 缺如되었다는 點을 指摘하고 丁抹農業의 展開過程에 있어 租稅政策이 다했던 役割을 讚揚하였다. 「헤루싱키大學」의 「살사미」(M. Saarsami) 教授는 農業勞動에 관한 分析이 進行되지 못한 弱點을 조용히 指摘하면서 내 質疑에 萬若 眞理가 있다면 報告者의 研究完成에 援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眞心이 넘쳐흐르는 態度를 表示하였다. 「옥스퍼드大學」의 「쿠퍼어」(J.P. Cooper) 教授는 英國의 歷史過程을 걸쳐서 大農企業制가 있는 적이 없다고 前提하면서 土地制度라는 靜態的 側面에만 視野를 局限하지 말고 動態的으로 農經營과 生産管理에 관한 分析을 並行시켜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모든 質疑者가 登壇하면 「류트게」教授는 몸을 그쪽으로 意識的으로 돌리면서 自己의 主張과 質疑內容을 精密히 比較計量하는 일에 餘念이 없었다.

8月 19日 아침 9時부터 學會事務에 관한 會議가 열었다. 이날 議長席에는 「켄부릿지大學」의 「포스탕」(M. M. Postan) 教授가 앉았다. 生涯를 中世經濟史의 解明에 바쳐온 老教授의 風模와 人品은 서로 意見이 갈리기 쉬운 實務를 整序하기에 充分하였다. 제치빠르게 뉴모어를 풍기면서 會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포스탕」教授는 우스운 말을 자주 하여 會員들을 웃기고 있었으나 그는 絶對로 웃지 않았다. 典型的인 美國인이었다. 이날 午前中에 맺어진 實務討論에 의하여 世界史學會와는 달리 世界經濟史學會를 創設하기에 滿場一致로 合意를 보았다. 그러면 事務局을 어느 나라에 두느냐에 관하여 美國으로부터 能動的인 提案이 나왔으나 다음 會期까지 「스톡홀름大學」의 이웃에 있는 「經濟史研究所」에 두기로 하였다. 앞에 작은 公園을 두고 있는 조용한 環境속에 앉아 있는 아담한 研究所이다. 어느 學會나 幕을 내릴 때에는 食事を 같이 하거나 團體見學 같은 것도 하는 일이 常例로 되고 있으나 世界經濟史學會는 아무런 儀禮的 모임도 없이 本會議가 끝나는 대로 幕을 내리고 말았다. 첫번째 모임은 學會여서 基金이 없기 때문인지 瑞典의 範節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會員에게 그냥 配付한 “Contributions”라고 적힌 論文은 600페이지나 되는 質, 量의 兩面에 걸쳐 類例 없을 만큼 豪華한 論文集이다.

# 彙 報

—檀紀4292年12月22日~93年12月1日—

## 韓 國 經 濟 學 會

### <第八回定期總會>

檀紀4292年12月22日 韓國生産性本部會議室에서 全國 各大學代表 4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會되어 崔虎鎭會長으로 부터 學會活動의 諸般에 대한 刷新된 討議가 있기를 바란다는 要旨의 人事에 이어 그동안 第三回 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를 盛況裡에 마치었다는 것과 特히 海外에서 要請되는 會誌의 交換數가 漸增傾向에 있으니 會誌의 年 二回 發刊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報告가 있었다. 그리고 蘇眞德 監査의 決算報告에 이어서 諸般討議에 드러가 다음과 같은 決議를 하였고 會誌「經濟學研究」第七輯의 配付로서 第八回 定期總會를 끝마추었다.

### 記

1. 그동안 海外로 부터의 圖書의 接受目錄을 幹事를 通하여 會員에게 通知하기로 함.

2. 會員範圍에 있어서 「第一回定期總會에서 經商科大學院生 二年以上을 會員으로 認定할 것을 決議함」中「經商科」를「經商營科」로 함.

3. 學會主催의 「地方巡廻學術講演會」

를 每年 學期初에 開催하기로 함.

4. 會誌의 發刊을 年 二回로 하고 會員의 會費(從來 年 1000圓)를 月 500圓으로 함.

### <第一回役員會>

檀紀4293年5月9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會長으로 부터 歐美學事視察을 마친 金相謙, 金孝祿 兩評議員의 歸國과 高承濟 評議員의 「리더쉽 케이스」渡美에 대하여 歡迎이 있었고「經濟學研究」第七輯의 國內外發送등의 諸般報告가 있었다.

### <第二·三回役員會>

5月22日과 25日 兩日に 걸쳐 四月革命以後의 新經濟政策樹立의 對政府建議案作成에 관한 討議結果 다음과 같은 建議案을 各新聞社에 公開建議하였다.

### 記

經濟政策樹立에의 對政府建議案

### 前 文

四月民主革命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全般에 걸쳐 伏在하여 왔던 非民主的 腐敗의 癌을 除去하기 위한 新秩

序에의 轉換을 區劃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轉換을 區劃케 한 遠心力이 非民主的 政治에 있었으나 이는 後進國에 있어서 經濟, 社會, 文化等이 政治의 優越的 支配力에 隸屬된다는 一般的 屬性과 이 나라의 沈滯性이라는 特殊한 屬性에 基因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이에 眞正한 民主政治의 實現을 모토로 하는 第二共和國新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各分野의 民主化의 基盤이 될 經濟民主化에 따르는 經濟政策의 樹立에 本學會의 任員會는 다음과 같이 建議한다. (但 가장 普遍的인 問題로서 關係各機關에서 發表되어 온 것은 本建議案에서 取扱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 (一) 生産의 經濟秩序의 確立

第二共和國 新政府의 經濟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그 窮極의 目標은 自立經濟의 確立에 둘 것이나 이것은 全體 國民經濟的 活動을 農業生産을 비롯하여 生産力增強 및 生産所得의 增大에 總集中함으로써 達成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具體的 立案에 앞서 그의 起黨派性을 위하여 먼저 이 나라 經濟秩序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며 確立된 秩序 위에서 經濟政策이 講究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八·一五解放과 더불어 政府樹立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濟政策의 本然의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經濟自立에의 逆進도 아직껏 마련되지 못하였음은 이 나라 政策의 基本路線을 規制하는 秩序의 確立이 缺如된데 基

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經濟體制는 先進國家의 그것을 全的으로 模倣할 수 없음은 後進의인 諸特性이 反證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뚜렷한 事實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經濟秩序는 資本主義에 土臺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純粹한 輸入式資本主義經濟秩序가 아닌 諸特性을 考慮하여 經濟活動의 範圍에 一定한 國家的 規制를 加하고 그 規制內部에서 自由主義的 經濟活動을 保障하는 秩序의 確立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 있어서 歪曲된 政治秩序가 經濟秩序를 全的으로 支配하여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沮害함이 없도록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經濟秩序의 確立을 期하는 同時에 그 위에 樹立되는 政策이 指向한 바 目標의 實効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 原則을 提示한다.

첫째, 利權의 特權化를 一切 除去하기 위하여 公務員의 嚴格한 責任制를 둘 것.

둘째, 官權에 의한 經濟活動의 沮害를 徹底히 除去하기 위하여 高級公務員을 登用時 當該公務員의 財産登錄制를 둘 것.

上記 두 原則에 立脚하여 가장 重大한 基本的 問題라고 볼 수 있는 國家 財政, 金融, 雇傭, 通商, 援助資金의 使用 그리고 經濟政策의 議決機關의 設置에 대하여 以下와 같이 建議한다.

#### (二) 財政面에서…經費調節

中小企業의 育成과 雇傭量의 增大를 가져오기 위하여 財政面의 投融資가 擴

大 實施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豫算規模의 策定에 있어서 그 歲出構造面의 更新을 통하여 可能하다.

이를 위하여

1. 一般會計에 있어서 國防을 精兵主義에로 止揚할 것을 前提로 하여 國防費를 削減할 것이며 削減된 만큼 剩餘農產物導入額도 調節될 것이다.

2. 國家公務員 및 準公務員(T. O. 以外の 者)의 大幅 減員을 實施하여 權限과 責任을 果敢하게 下部로 移讓할 方向으로 機構를 縮少함과 아울러 公務員의 待遇를 改善할 것.

### (三) 租稅面에서…收入調節

1. 農業生産의 增強 및 農業所得의 増大를 위하여 現行臨時土地收得稅中 農村으로 부터의 土地收得稅는 이것을 期限附로 免除措置하고 아울러 農家에의 一切 雜賦金을 徹底히 廢止할 것은 勿論이며 農地改革을 斷行하여 農漁村 高利債의 現在 以上 増加를 抑制시킬 것.

2. 生産企業體에 대한 資本收得稅를 調節하여 企業體內部留保를 増加시키고 그 留保金에 의한 積極의 新投資를 促求하고 此 企業體에 대하여서는 金融의 特待를 부여할 것.

3. 腐敗方式에 의한 不正蓄財者 및 巨額의 財産所得者에 대하여 臨時特別 財産稅法을 制定하고 累進課稅할 것.

4. 海外逃避財産은 國有로 歸屬시킬 것.

### (四) 金融面에서

1. 지금까지의 政治性 特融을 嚴禁하고 社內留保를 가지는 生産企業體 特

히 輸出産業 및 그의 關聯産業의 正當한 擔保物에 의한 融資는 機會均等으로 優待할 것.

2. 中小企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都市에는 반드시 中小企業金庫를 設置할 것.

### (五) 雇傭面에서

1. 公務員 및 準公務員의 減員에 따르는 失職者는 生産企業에 轉向시킬 것.

2. 財政投資에 의하여 長期的인 大規模의 土木事業, 治山治水事業, 光觀施設事業, 鐵道敷設事業, 住宅建設事業(아파트)等を 이르게 雇傭量을 増大시킬 것.

### (六) 對外通商의 面에서

첫째, 對日通商

1. 對日通商의 圓滑을 期하고 後進의인 우리나라 水産業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日本을 援助弗을 비롯한 一般輸出弗의 購買地域에 包含시키어 同等한 待遇를 한다는 條件과 平和線(所謂 李 라인)은 一定期限附로 繼續維持한다는 條件으로 韓日通商의 正常化와 國交正常化를 促求한다.

2. 對日通商에 있어서 生産財를 輸入케 하고 消費財의 輸入을 抑制할 것이며 米穀의 對日輸出로는 肥料를 輸入케 하고 不足分은 ICA資金에 의하여 官需로 導入할 것.

둘째, 一般地域과의 通商

輸出品目制를 廢止하고 輸出産業 및 그의 關聯産業의 自由와 創意에 의한 競爭을 保障하여 質과 價格面의 對外競爭力을 提高시켜 貿易逆調를 是正할 것.

### (七) 援助資金의 使用面에서

1. 援助資金에 의하여 最優先의 電力開發의 促進을 期하여 生産企業體에 대한 動力을 絕對確保할 것.

2. 援助額의 效率의인 活用을 위하여 지금까지 流通部門에 結付되었던 援助資金을 全의으로 輸出産業 및 그의 關聯産業에 結付시킬 것.

### (八) 經濟政策議決機關의 設置

1. 超黨派의 政策의 樹立과 着實한 實踐을 目的으로 宿願이었던 嚴正中立의인 經濟政策의 議決機關을 設置할 것.

2. 經濟政策의 樹立에 科學的 素材가 되는 統計作成을 위하여 嚴正中立의인 統計機關을 設置할 것.

### 結 語

以上 國家財政, 金融, 雇傭, 通商, 援助資金의 使用等 各分野에 있어서의 施策은 早速한 經濟秩序의 正常化와 自立經濟의 確立을 위한 가장 基本的인 것임은 贅言을 要치 않거니와 이 各分野의 施策은 이 나라 農業所得을 비롯한 生産所得의 增大와 密接不可分の 것임을 再強調한다.

然이나 全體 生産所得의 增大를 위한 上記 諸施策에는 스스로 인플레이션 政策을 隨伴할 것이나 이것은 六·二五以後 지금까지의 赤字인플레이션과는 本質的으로 相反된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을 消費性인플레이션이라 한다면 上記諸施策에 隨伴되는 인플레이션은 生産性인플레이션이라 할 것이므로 추호도 주저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嚴格한 責任制下에서 生産力 增強에 集中的으로 諸施策을 講究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各分野의 聯關性을 缺如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果敢性을 絕對 必要로 하며 全體 國民經濟的 活動은 또한 끊임없는 資本形成의 길로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上記 諸施策에 따라 對韓經濟援助當局에 建議하고 싶은 것은 W. W. Rostow 教授가 말한 것과 같이『美國은 援助를 받는 國家가 그 社會內에서 公私企業의 比重을 어떻게 定하느냐 하는 權利를 保有함을 認定할 것이며 따라서 成長過程을 熱誠것 밟고 있는 限에서 美國式 機構類型을 強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韓紀4293년5月28日

韓國經濟學會 任員會

### <第 四 回 役 員 會>

7月 2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어 第四回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 研究發表大會의 題目選定이 있었고 이의 實施要綱은 例年과 같이 하여 11月初旬頃에 開催하기로 決議하였다.

### 記

#### 選定된 題目

1. 經濟民主化의 諸問題
2. 稅制와 自己資本育成
3. 農業金融의 諸問題
4. 勞動組合의 位置와 將來
5. 企業民主化의 諸問題
6. 對日通商問題

<유네스코韓國委員會로 부터

本學會를 會員團體로 指定>

7月 16日字로 유네스코韓國委員會에



서는 本學會를 第四期 社會科學分野의 會員團體로 指定함에 따라 崔虎鎮會長은 學會代表로 高承濟博士를 추거하였다.

### 〈第五回 役員會〉

10月 16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이날 第四回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의 兩일에 걸쳐 特別贊助講演을 實施할 것과 아울러 本學會가 檀紀4285年 11月30일에 創立된 以來 於焉 9年間に 걸쳐 年刊 第八輯에 이르는 會誌의 發刊 및 外國學界와의 꾸준한 連絡 그리고 四回에 걸치는 大學院學生의 研究發表大會等 諸事業活動을 해 온바 이제는 本學會도 名實相符한 學術研究와 그의 普及의 暢達을 目的으로 4293年度 定期總會時부터 그를 會員의 研究發表의 機會로 마련하기로 決議하였다. 한편 이날 多年間의 研究끝에 서울大學校로 부터 經濟學博士學位를 取得케 된 評議員인 高承濟教授에게 崔虎鎮博士의 記念品贈呈과 祝辭가 있었고 歐美에서 歸國한 評議員인 李昌烈教授 및 監查인 宋喺永, 尹炳旭 兩教授에 대한 歡迎이 있었다.

### 記

#### (一) 特別贊助講演

1. 高承濟博士의 「第一次世界經濟史學會參觀報告」
2. 李昌烈教授의 「美國經濟學會年次大會의 性格」

#### (二) 會員의 研究發表要領

1. 研究論文

從來에 發表되었던 研究論文도 可함

#### 2. 論文內容

經濟學, 商學 및 經營學의 理論, 政策, 歷史, 實情에 關한 것

#### 3. 提出書類

論文要旨 1通, 履歷書 1通

#### 4. 提出마감

每年 11月 末日

#### 5. 發表日時

每年定期總會의 日時와 같음

#### 6. 發表場所

每年定期總會會議場

#### 7. 發表 및 質疑要領

發表者는 40分間 發表하고 質疑에 應함

#### 8. 論文要旨의 配付

會員에 대한 要旨配付를 總會以前에 本學會가 擔當함

### 〈第六回 役員會〉

10月 29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어 會長으로 부터 第四回 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 日時(11月9日 午前9時半~10日)의 報告와 아울러 그의 審査委員의 選定에 이어 「經濟學研究」 第八輯에 掲載할 接受原稿에 대한 審議가 있었다.

### 〈第七回 役員會〉

11月 8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데 이날은 會長으로 부터 第四回 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 發表大會의 원각사 事情에 의한 日時變更(11月9日午後1時~10日)등 諸般報告와 그

의 進行에 대한 討議가 있었다.

# ＜第四回全國大學院學生 經濟學研究發表大會＞

11月9日~10日 兩日에 걸쳐 원각사에서 釜山, 大邱, 清州 등의 地方各地로부터의 來賓 및 大學院學生을 비롯하여 經濟學徒 25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1日에는 崔俊鎮會長의 人事와 李政在教授의 發表 및 質疑에 대한 注意에 이어 高承濟博士의 「第一次世界經濟史學會參觀報告」라는 演題로 特別講演이 있었고 곧 이어 4名의 研究發表가 있었다. 第2日에는 黃炳駿教授의 進行에 의하여 續開되어 李昌烈教授의 「美國經濟學會年次大會의 性格」이라는 演題로 特別講演에 이어 7名의 研究發表가 있었으며 끝으로 高承濟博士의 綜合講評과 各專門分野의 金俊輔, 李龍澤, 卓熙俊 여러 教授님의 個別審査意見이 있었다. 그리고 本大會에서 發表者 및 質疑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激勵의 施賞과 參席者에 대한 記念品の 配付가 있었다.

## ＜발 표 상＞

東亞大學校大學院

金 德 源 韓國經濟學會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田 明 鎭 유네스코韓國委員會委員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李 炳 秀 高麗大學校總長賞

延世大學校大學院

金 重 鉉 東國大學校總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趙 容 濟 韓國經營學會長賞

高麗大學校大學院

朴 誠 圭 中央大學校總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孫 建 來 民議院豫算決算委員會委員長賞

高麗大學校大學院

金 洛 中 國防研究院長賞

東國大學校大學院

黃 聖 八 韓國生產性本部理事長賞

建國大學校大學院

李 基 成 中央工業研究所長賞

高麗大學校大學院

黃 致 吉 韓國研究圖書館長賞

## ＜질 의 상＞

東亞大學校大學院

韓 昌 愚 서울中央放送局長賞

東亞大學校大學院

洪 永 杓 延世大學校總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李 鍾 燾 東亞大學校總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李 允 鍾 成均館大學校總長賞

서울大學校大學院

朴 玄 埰 韓國農業問題研究會長賞

東亞大學校大學院

李 昌 弼 서울大學校總長賞

建國大學校大學院

朴 南 基 韓國農業經濟學會長賞

清州大學大學院

任 正 淳 韓國經濟學會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朴 容 相 韓國經濟學會長賞

東亞大學校大學院

金 恂 漢 韓國經濟學會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金 應 貨 韓國經濟學會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白 石 鉉 韓國經濟學會長賞

東國大學校大學院

朴 忠 煥 韓國經濟學會長賞

中央大學校大學院

朴 炳 日 韓國經濟學會長賞